

정현자 사진의 소재는 들판이고, 그 대상은 꽃과 풀과 잡목더미와 같은 소박한 자연이다. 풍요롭건 메마르건 간에 대지는 우리 삶의 터전이며, 들판은 대지에 떠도는 우리의 영혼이 머무는 실재 공간이다. 소극장이 그렇다. 들판은 진정 자연과 인간이 드라마를 연출하는 대지 어느 구석의 소극장이다. 자연이 들판을 품에 안고, 들판은 그 자연에 조용히 기댄다. 숨을 죽일 때도 있고 춤을 출 때도 있다. 그렇게 들판은 항상 자연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또한 들판은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때때로 자연에 거역하기도 하지만 들판은 자연과 생명을 함께 한다. 자연이 스스로 죽는 법이 없듯이 들판도 그러하다. 메마른 잡풀, 떨어지는 이삭, 그리고 썩어 가는 나무, 그들은 저물어 갈 뿐이지 스스로 죽지 않는다.

그의 들판은 살아있는 자연, 살아있는 대지의 풍경이다. 야트막한 야산, 구릉이 있는 들판이 보인다. 작품내용은 전체적으로 음울하고 황량해 보이는 들판이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찾았을까. 그는 들판에서 두 가지 대비되는 자연을 찾으려 했던 것 같다. 드러내는 영혼과 감춰진 영혼, 생명 그 존재함에 대한 것이다. 영혼의 땅을 밟고 존재하는 두 가지 사물을 본다. 살아있는 것과 죽어 가는 것, 노래하는 것과 침묵하는 것, 드러내는 것과 숨어 있는 것, 대지 위에서 자연이 연출하는 그 오묘함을 들판의 소극장에서 생생하게 느끼는 것이다.

그는 자연의 오묘한 연출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않다. 그가 만나고 선택한 사물에 자신의 의지를 개입시킨다. 인간이 창조한 소극장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암실이라는 인간의 소극장에 들판이라는 자연이 초대된다. 그리하여 그 어둠 속에서 실재했던 사물이 새롭게 소생하기 시작한다. 자연의 변조, 사물의 유동, 그의 마음과 손끝으로부터 자연의 생명력과 작가의 상상력이 조화를 이룬다. 풀과 꽃이 만나고, 돌과 나무가 만난다. 실재 자연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들이 작가의 소극장에서 이루어진다. 대지의 소극장에서 연출된 자연의 방식이 아니라, 작가의 소극장에서 연출된 인간의 방식이다.

그의 사진은 흑과 백이다. 여전히 모노크롬에 대한 미련이 많다. 가라앉은 빛, 산란된 빛을 좋아하고, 그 침울하고 산란된 빛에서도 부각되는 자연의 형상을 좋아하는 것은 여전하다. 그가 좋아하는 자연의 형상들은 인간의 소극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연출된 빛은 자연에서처럼 뚜렷하고 환한 형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상에 좀 더 가까이 가려는 침잠의 빛, 내적 형상이다.

정현자의 사진은 구상적이면서 추상적이다. 흔히들 구상은 자연적인 것이고, 추상은 인간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원래는 추상이 자연적인 것이고, 구상이 인간적인 것이다. 추상적이었던 자연을 인간들이 구상화했을 뿐이다. 그는 그 구상적인 형상을 추상적인 형상으로 변조했다. 그 변형된 추상 속에서 사물들이 훨씬 더 조화를 이루고 있다.